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그것은 곧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성경말씀: 약4:13-17

우한 폐렴 코로나 팬데믹, 2년 이상, 3년째, 많이 퍼져서 하루에 7-8,0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으로 변이하면서 2월말에는 수만 명 확진자 발생 가능성,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종식되지 않을까? 1919년의 스페인 독감도 2년 창궐하다가 자연히 사라짐

감사하게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요 근래에 몇 분이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들음. 모두 건강을 되찾음

1달 전인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김익현 어르신 확진 소식, 연세가 80 고령, 12월 26일(주일)에 전화를 드림, 고대 안암 병원, 평안히 잘 있다는 소식

그리는 가운데 나도 12월 27일부터 3주 동안 코로나 확진 입원,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이 돼서 몇 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안 받음, 지난 주 금요일 퇴원, 15일(토) 유용상 어르신 전화 통화, 아드님, 위독하시다. 지난주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함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지난 주 월요일(17일), 소천 소식이 오고 교회에서는 18일 화요일 저녁 7시경에 장례식장 방문,

가서 알고 보니 이미 1월 4일에 소천하심

내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코로나 걸린 뒤 2주도 안 돼서 급작스럽게 소천하셨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오늘 추모 영상, 건강하고 쾌활하게 생활하셨다. 코로나 기간, 우리 집에도 몇 분들과 함께 초대해서 교제를 나눔, 친밀한 교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헌금도 해 주심, 10명으로 인원이 제한될 때도 매주일 가장 먼저 서울 정릉에서 두 분이 차를 타고 오셔서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드리고 가시겠다고 하시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심

연세가 80인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교제하는 것 쉽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적인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 내게는 참으로 큰 충격이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이미 이번 주 설교 본문과 제목이 정해졌다. < >,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더욱이 지금은 마지막 때, 정말로 귀중한 생명을 허비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책, 구원받은 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는 초기 사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실제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친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생활 지침서이다.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권면한다. 또한 그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바르게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교회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위선을 비판한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확증하므로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불리기도 한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지만 야고보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야고보서는 5장, 108절, 참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이다.

인생에 대한 고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창1:26)

무언가를 계획하는 능력, 인생을 설계하는 능력, 그리고 성취하는 능력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특히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야고보서의 대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상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의 주장(13), 내 힘으로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함

13절: 인생은 복잡하다: 여러 사람과 여러 장소,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사고팔고,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고

이러함에도 내가 내 힘으로 다 잘 할 수 있다고 강한 확신을 띠면 문제, 파산하기 쉽다.

14절: 인생은 확실하지 않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잠27:1), 눅12:16-21의 부자

인생은 짧다. 수증기와 같다(14). 라면 냄비의 김과 같다.

수증기는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한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 순간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10장 37,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주님은 잠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2천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영원을 사시는 분에게는 2천년도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욥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다(욥7:1-3, 6-7; 14:1-2).

1. 욥7:1-2, 인생은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려고 하니 밤이 되어 하루가 끝나버린 품꾼의 날과 같다.
2. 욥7:6, 베를 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북이 한번 왔다 가면 실 한 줄이 더해진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 한번 빠르게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초등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다시 직장을 잡고 그러다 은퇴를 한다.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3. 욥7:18, 인생은 수증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베를 북과 같고 품꾼의 날과 같은데 거기다가 인생에는 단련하기 위한 시련까지 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시련이자 단련의 기간이다.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신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서 단련되는지 지켜보신다. 구원의 기쁨 중 하나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4. 욥 8:8-9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주님의 날들에 비하면 우리의 날들은 그저 그림자와 같으며 우리는 어제 태어난 자와 같다.
5. 욥13:25,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숲속에서 흩날리는 낙엽과 같다고 말씀한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실뿐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염려하시고 도와주려 하신다.
6. 사40:6-8,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풀과 같다.

약4:13절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문제

성경은 사람의 인생이 수증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베를 북 같고 낙엽 같고 사라지는 구름 같고 풀과 같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어디에 가서 머물면서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계획을 짜고 장사를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주님께서 이런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걷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다윗의 말 대상29:15, 확실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썩을 육신의 몸을 떠난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하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확실한 것은 잠시 후에는 이 육체를 벗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먼 시간 뒤의 일이 아니다. 오늘밤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여기를 떠나야 한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15)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을 하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서 있을 수도 없고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나의 병원 사례, 김익현 형제님 소천 사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계획했다고 말할 뿐이다. 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며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요한계시록), 성경 문제 등 근본적인 것 가르치고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사람의 걸음과 행위와 말과 생각과 생명 자체는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한 자들이 있다(16)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것은 죄로 끌고 가며 그 결과는 항상 악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17, 뵤후2:21).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뜻에 반대가 되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하는 이유: 교만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온다(히12:5-11).

또한 보상을 잃는다(고전9:24-27).

주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골3:22-25).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존재(사57:15),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40:8)

인간은 수증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베들 북 같고 낙엽 같고 사라지는 구름 같고 풀과 같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전적으로 은혜로, 요3:14-16

김익현 어르신,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나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영원히 사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